

특별기획

불법체류자 구제 제도 홍보 부족

익산시, 읍·면사무소 근로장려금 안내 창구 개설

군산시 수산물가공업 입주업체 모집

군산시는 수산물 연구개발단지 내 수산물 가공업 수산가공 입주업체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신규창업이나 수산물 가공업을 보유하고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업체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생산시설이 가능한 수산가공업체 5개소로 입찰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8일까지 온비드(www.onbid.co.kr)에 접속해 입찰에 참여하고,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에 게시된 입찰안내서를 참고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체험학습 학생운송차량 교통안전점검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 부송지구대(대장 이용배)는 봄철 현장체험 활동이 잦아지면서, 체험학습을 위해 떠나는 학생운송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감지와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송지구대는 최근 지역 내 부송초교, 부천초교 등 현장체험 학생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음주감지를 비롯하여, 안전띠 착용,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준수 및 과속도로 대열운행 금지로 대열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학생들에게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로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틀, 부송지구대는 4~5월 관내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교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조촌동 무궁화 화단 조성

군산시 조촌동은 18일 주민자치위원회 및 노인일자리 사업참여, 직원들과 함께 가로환경 정비 및 무궁화 화단을 조성했다.

이번 무궁화 화단 조성은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에 위치한 공한지내 불법 농작물 및 쓰레기 투기 지역을 정비한 후 무궁화 300주를 식재해 나라사랑 정신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무궁화 묘목별 1인 관리자를 지정 후 네임택을 부착해 식재 후에도 꾸준히 무궁화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진희병 조촌동장은 "무궁화 식재를 통해 주민화합과 애국정신을 배양할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다"며 "지속적인 가로환경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통보의무 면제·외국인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등 이용 못하고 있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불법체류자를 위한 정부의 '통보의무 면제' 지침과 '외국인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등이 홍보부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정책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불법체류 사실이 출입국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도록 한 방침이다. 비가 쏟아지던 지난 18일 밤 10시 10분경 군산시 나운동 도로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와 보행자 간 사고로 피해자 A(남)씨는 사고 직후 몇 분동안 의식이 없었고 출혈을 동반한 큰 부상을 당했다.

119구급대에 신고 후 초조하게 구급대를 기다리던 중 의식이 돌아온 A씨는 뜻밖의 말을 했다. A씨는 "병원에 가면 안된다. 경찰을 부르면 안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한사코 병원에 가기를 꺼려했다. 이유를 물어보자 "나

는 외국인 노동자이고 불법체류자이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시민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휘청이는 몸을 이끌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A씨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으로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큰 부상을 당하고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것 이와 같이 국내에 거주중인 불법체류자들은 교통사고 또는 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강제추방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이처럼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1일부터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주요범죄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임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통보의무 면제」조항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공무원이 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수행 중 외국인 피해 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5년 도입한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다. 사업 내용은 1회당 500만원까지 회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의료비의 목적에 관계없이 지원 한다. 하지만 좋은 제도가 시행중임에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들은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 관련기관의 관심과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해경, 낚시어선 불법행위 집중 단속

7월 22일까지 미신고 영업행위·정원초과·음주운행 등

해경이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22일까지 낚시어선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이 이처럼 강력 단속 카드를 꺼내 든 데에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개연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어났다. 지난해 10명의 목숨을 앗아 갔고 8명이 실종된 제주 '돌고래 호' 전복사고와 같이 낚시어선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는 조업보다 낚시어선이 '돌이' 되다보니 손님을 끌기위해 안전을 무시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해경은 이 특별단속 기간동안 ▲미신고 영업행위 ▲정원초과 ▲음주운행 ▲출입항 미신고 및 승무기준 위

반 ▲선박위저발신 장치 차단 ▲영업구역 이탈 ▲허위조업 실적 제출 면세유 부정수급 ▲선박 불법 개조 ▲어업경영의 타인차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이 사고 억제에 도움이 된다면 가용 함정과 육상 수사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한국폴리텍대학 김성구 기획운영이사 익산캠퍼스 방문

한국폴리텍대학 김성구 기획운영이사가 지난 15일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를 방문해 캠퍼스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교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성구 이사는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뒤, 익산캠퍼스 전체 시설을 둘러보며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전체 교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 지도관리에 힘써주는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현재 추진중인 익산 캠퍼스 BII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김성구 이사는 한국폴리텍대학 교육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참사 폴리텍'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기

술은 물론 인성까지 갖춘 참다운 인재양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왕원기자

익산시는 읍·면지역 고령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돕기 위해 오는 5월부터 15개 읍·면사무소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시는 18일 익산시청 홍보관에서 창구 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근로장려금 제도의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설명회에는 박순희 광주지방국세청 소독지원계장이 강사로 초청돼 근로장려제도의 주요내용과 고령자 방문 시 신청 안내 방법, ARS 신청 매뉴얼을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최대 210만원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매년 5월 ARS(1544-9944), 홈택스 서면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9월 말에 지급된다. 특히 지난해 처음 도입된 ARS 전화신청은 행정력 절감은 물론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해 신청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이용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1,800여명 참가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꾸며져

군산시는 18일 월명실내체육관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군산시 후원과 사단법인 군산시장애인연합회(회장 장종진) 주관으로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1,800여 명과 함께 기념식과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꾸며졌다. 기념식에서는 진나루 타악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모범장애인 표창과 장애인복지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기념식 후에는 월명체육관을 주무대로 이틀에 걸친 산책 걷기와 문화한마당 등 다채로운 공연과 볼거리를 통해 휴거은 시간을 보냈으며 푸짐한 경품행사도 이어져 축제의 장을 이뤘다.

또한 장애인과 가족, 지역주민을 위해 군산의료원과 보건소의 무료 건강 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관련 제도 정보전달과 척수장애인협회의 보조구 무상수리 등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군산시는 숲에서 자연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자연 친화활동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자연 그대로의 숲을 통해 행복을 찾는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을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주 화·목요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운영되는 어린이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 매주 화·목 운영

어린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튼튼하고 씩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어린이 숲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군산시는 숲에서 자연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자연 친화활동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자연 그대로의 숲을 통해 행복을 찾는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을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주 화·목요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운영되는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은 청암산에서 6~7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운영 프로그램은 현장 위주의 참여형 교육으로 월별·계절별로 차별화해 추진할 예정으로 아이들에게 숲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고 나무와 식물 살펴보기, 숲 속 곤충 관찰하기 등 아이들의 오감발달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군산=문정곤기자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라”를 사랑해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 오래 쓰면 찌든때와 막힘
-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속속 하고 싶다면
-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씨서라” 실제 설치!

정수액 [박스]

세서리 (Seeseri)는 2010년 12월 24일 설립된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100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11,000여개의 대리점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수령액 돌려 받는다? 믿어주고, 무상정리, 지원금이 생겼어요

식용액 사고 영구적으 해결 되었어요